

<Biography>

김진아 KIM JIN A キム・ジナ

김진아는 개인의 학습된 일상을 관찰한다. 작가는 무기력을 학습된 사건의 반복에서 누적된 피로감이자, 동시에 자각을 거쳐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변곡점)으로 바라본다.

작가는 최근 서울 사이아트스페이스에서 ‘발전에 관한 의무감과 이동’을 주제로 개인전(Ground, up, ready)를 진행했다. 전시는 수경재배시스템과 살아있는 농작물, 드로잉, 사물놀이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김진아는 무기력과 에너지 사이의 변곡점에 관해 실험하며 이를 조각,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시각예술 프로젝트로 풀어내고 있다.

김진아는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 다수의 국내외 기획전에 초대되었으며, 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아시아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My work reevaluates fatigue caused by tremendous society's expectations and the value of human's labor through art. My work pays attention to the mindset of following social norms without thinking critically. I believe this causes burn-out and helpless feeling to people in modern society. I would like to call this 'hidden labors' I am interested in making people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goal in human life. I intend to use of various media such as performance, farming, drawing, sculpture, and participatory art.

キム・ジナは自身の「学ばされた日常」について観察し、作品を制作している。彼女は無気力について、学ばされた出来事の繰り返しが累積された疲労感であると同時に、自覚することでその状態を抜け出せる特別な出来事(変曲点)であると考えている。

最近では、ソ울의 사이아트스페이스(CYART SPACE)において、「発展に関する義務感と移動」をテーマに、個展『Ground, up, ready』を開催した。同展では、水耕栽培システムと生きている農作物、드로잉 작품을展示した他、韓国の伝統的な農樂をルーツとする現代音楽サムルノ리의パフォーマンスを行った。このように、キム・ジナは無気力とエネルギーの狭間にある変曲点について

考察し、これを彫刻、映像、インスタレーション、パフォーマンスといった多様な媒体を活用して「視覚芸術プロジェクト」として展開している。

キム・ジナは国民大学校立休美術学士及び同大学院修士を卒業。国内外の多数の企画展に招待されており、2度の個展を開催した。現在、韓国を拠点にアジアの各地で精力的に活動を展開している。